

특별 대담

새 대통령에 바란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됐다. 기업인 출신의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경제'라는 이슈를 내걸고 전 국민에게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감정을 극복해 내겠다'는 선거구호를 그의 공약으로 믿고 있는 호남민은 이번에는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광주일보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새정부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를 정리했다.

호남 두배 지원·인재 등용...영산강 운하 꼭 지켜져야

- ▶ 일시=20일 오후 3시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 ▶ 대담=이정록 전남대 교수
- ▶ 고영만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 ▶ 사회=조경완 편집부국장

—새 정부에게 호남민이 바라는 바는 많다.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정록=한나라당 호남 공약의 특징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모아서 광역경제권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광주·전남만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영산강운하, 남해안 선벨트, 광주문화수도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영산강 운하를 통해 영산강을 살리고 광주·목포·나주를 연결하

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등 제도적 틀을 바꿔놓았다. 이 토대 위에서 이 당선자는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광양·여수·순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무안·목포·영암·해남의 환환경해권 전진기지 육성, 호남운하의 다목적 내륙항 복합지구 개발, 글

“공동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 차질 없어야

광양항 육성·여수 엑스포 지원도 과감히

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은 J프로젝트, 고흥 우주항공, 여수 엑스포, 통영 조선, 창원 기계, 부산 물류산업 등을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목포에서 부산까지를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성장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광주 문화도시 건설도 보다 확대해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영만=호남은 최근 들어 사회간접시설 현황이 나아졌다고 하나 지금도 부족하다. 지역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기업 유치다.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화려하지만 추상적인 공약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호남으로 기업이 오는데 이 당선

로별 농산물 물류기지 육성 등 한나라당의 호남권 8대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중 첫째로 광양·여수·순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 평가하면.

▲고=중요한 내용이지만 공약은 포괄적 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광양항을 꼬집어서 개발하겠다는 식의 공약이 중요하다. 광양항은 국민의 정부 이후 투자를 시작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양항체제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했지만 최근 들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은 투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광양항은 투자에서 배제되면서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광양항에 대한 배후단지를 더 조성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다.



이정록

▲대한지리학회장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고영만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아일랜드 UCD 경제학 석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자생력을 기대하기에 앞서 정부가 집중부양 해야 한다는 말인가.

▲고=그렇게 해야 한다. 광양항이 낙후돼서는 호남에 기업 유치가 안 된다.

—환경해권 기지 육성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됐지만 아직도 된 것이 없는 데.

▲이=새만금프로젝트에서 J프로젝트 등까지 연계시키는 내용이다. 5년 내로 기업이 오는 등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 토대를 만들 것이다.

▲고=공약은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포항은 옛날엔 3대 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런데 북한은 개성·해주·남포 등 환해권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부산항으로 운송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목포와 군산항을

북한과 중국의 물자 교류형으로 육성하면 호남권 기업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영산강운하를 살펴보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경에 문제만 없다면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이=실리적으로 영산강운하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모두 2조원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부운하는 민자지

민 영산강운하는 국고다. 이 당선자는 오는 2009년 영산강운하를 경부운하와 같이 착공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 영산강운하는 2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 경부운하는 워낙 큰 사업이고 반대도 많아 터역거리겠지만 영산강운하는 어렵지 않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 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고=구호 만으로는 안 된다.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정부가 손 놓지 말고 정치적 배려를 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도로·항만·호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FTA 최대 피해자는 전남이다. 그래서 글로벌 농산물 물류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고=물류기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조·가공·마케팅·수출을 모두 관광하는 종합 농산물 생산유통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전남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전남도는 FTA가 되면 자동차·철강·화학 등에서 유리한 환경이 된다. 대국적 견지에서 농민들이 반대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정치적 얘기를 해보자. 이 당선자에 대해 전국에서 호남이 가장 반대자가 많았다. 때문에 또다시 소외를 받지 않나 하는 불안감도 있다.

▲고=이 당선자는 추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의지만 있다면 J프로젝트는 성사될 것이다.

—여수엑스포가 순조롭게 준비되면 이명박 전권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할 텐데.

시기겠다고 했다. 기대된다. 인재등용도 최대 노력해줘야 한다.

—이 당선자 브레인들 중 일부가 참여정부가 우려다짐으로 추진한 지방분권사업을 그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완급 조절은 있어도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수정은 불가피하다.

기업도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업에게 입주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것이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갈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 초반 전남 서남권에 큰 판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허허벌판이다. 새정부는 어떨까.

▲고=이 당선자는 추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의지만 있다면 J프로젝트는 성사될 것이다.

—여수엑스포가 순조롭게 준비되면 이명박 전권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할 텐데.

“지지부진 J프로젝트도 통큰 국가 지원 기대

표 적었지만 정서 큰 변화...차별은 안될 말”

▲이=당선자가 지원하기로 했으니 문제 없을 것이다. 특히 남해안 선벨트 구상에서도 교통 인프라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쉽다.

▲고=여수 엑스포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지원하는 명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당선자에게 할 말은

▲이=조만간 광주를 방문, 호남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무엇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고=지역민과 지역기업이 당선자에 대해 기대가 많다. 우선 광주·전남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눠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직령기자 jrwii@kwangju.co.kr

현대건설 상무 힐스테이트 당첨자 발표

2007년 12월 21일 금요일 광주일보

제17941호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16면

17면

18면

19면

20면

21면

22면

23면

24면

25면

26면

27면

28면

29면

30면

31면

32면

33면

34면

35면

36면

37면

38면

39면

40면

41면

42면

43면

44면

45면

46면

47면

48면

49면

50면

51면

52면

53면

54면

55면

56면

57면

58면

59면

60면

61면

62면

63면

64면

65면

66면

67면

68면

69면

70면

71면

72면

73면

74면

75면

76면

77면

78면

79면

80면

81면

82면

83면

84면

85면

86면

87면

88면

89면

90면

91면

92면

93면

94면

95면

96면

97면

98면

99면

100면

101면

102면

103면

104면

105면

106면

107면

108면

109면

110면

111면

112면

113면

114면

115면

116면

117면

118면

119면

120면

121면

122면

123면

124면

125면

126면

127면

128면

129면

130면

131면

132면

133면

134면

135면

136면

137면

138면

139면

140면

141면

142면

143면

144면

145면

146면

147면

148면

149면

150면

151면

152면

153면

154면

155면

156면

157면

158면

159면

160면

161면

162면

163면

164면

165면

166면

167면

168면

169면

170면

171면

172면

173면

174면

175면

176면

177면

178면

179면

180면

181면

182면

183면

184면

185면

186면

187면

188면

189면

190면

191면

192면

193면

194면

195면

196면

197면

198면

199면

200면

201면

202면

203면

204면

205면

206면

207면

208면

209면

210면

211면

212면

213면

214면

215면

216면

217면

218면

219면

220면

221면

222면

223면

224면

225면

226면

227면

228면

229면

230면

231면

232면

233면

234면

235면

236면

237면

238면

239면

240면

241면

242면

243면

244면

245면

246면

247면

248면

249면

250면

251면

252면

253면

254면

255면

256면

257면

258면

259면

260면

261면

262면

263면

264면

265면

266면

267면

268면

269면

270면

271면

272면

273면

274면

275면

276면

277면

278면

279면

280면

281면

282면

283면

284면

285면

286면

287면

288면

289면

290면

291면

292면

293면

294면

295면

296면

297면

298면

299면

300면

301면

302면

303면

304면

305면

306면

307면

308면

309면

310면

311면

312면

313면

314면

315면

316면

317면

318면

319면

320면

321면

322면

323면

324면

325면

326면

327면

328면

329면

330면

331면

332면

333면

334면

335면

336면

337면

338면

339면

340면

341면

342면

343면

344면

345면

346면

347면

348면

349면

350면

351면

352면

353면

354면

355면

356면

357면

358면

359면

360면

361면</